



“어느 좀비가 더 무서울까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는 올해 할로윈 축제에서 좀비를 주요 테마로 내세우고 있다. 영화계 특수분장팀이 참여해 실감나는 메이크업을 자랑하는 롯데월드의 ‘호러 할로윈 좀비 아일랜드’(왼쪽)와 맹수가 거닐던 야위 사파리를 좀비 퍼포먼스의 무대로 응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에버랜드의 ‘호러 사파리’.



사건제공 롯데월드 어드벤처, 에버랜드

“더 오싹하게” 좀비 아일랜드 vs 호러나이즈

테마파크 할로윈 축제

롯데월드 국내 최대규모 좀비공연 VR 장비 착용하고 이색 공포체험

에버랜드 사파리투어 곳곳에 좀비 영상 활용 특수효과로 공포심 더해

장하는 인기 소재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모두 할로윈을 테마로 한 행사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올해는 규모도 키우고 ‘오싹한 공포 체험’이란 미니적인 요소를 새로 가미했다. 특히 영화 ‘부산행’의 성공을 통해 확인된 대중문화 인기코드 좀비를 축제의 야간 테마로 잡은 것이 인상적이다.

●롯데월드, 야간 VR 착용하고 즐기는 좀비 퍼포먼스

롯데월드의 할로윈 축제는 낮과 밤이 확 다르다.

낮에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테마 중심이다. 파크 곳곳을 귀여운 유령과 호박 모형 등으로 장식하고, 할로윈 드레스를 맞춰 입은 ‘해피 할로윈 스토어 퍼레이드’가 열린다. 할로윈 고스트를 주인공으로 선보이는 뮤지컬 쇼 ‘드라큘라의 사랑’도 행사기간 동안 무대에 오른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 분위기가

180도로 바뀐다. ‘매직 아일랜드’가 ‘좀비 아일랜드’로 바뀌고 ‘호러 라이트’, ‘통제구역M’, ‘스트리트 좀비 어택’ 등 국내 최대규모의 좀비 공연이 열린다. 일본 좀비영화 ‘아이 엠 어 히어로’와 한국영화 ‘명량’, ‘혈의 누’, ‘고지전’의 특수 분장팀이 참여한 좀비 캐릭터의 실감나는 분장이 자랑거리다.

‘감독의 방’에서는 VR(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이동하면서 공포를 느끼는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다. 파크 내 상품도 미이라 소시지, 좀비 라조기, 속딱 손가락 돈가스, 눈알피자, 좀비백신 등 축제 분위기를 살렸다.

●에버랜드, 야간 사파리에서 좀비를 만난 디엔...

에버랜드는 사파리같은 동물관람시설과 스릴 어트랙션을 갖춘 종합 테마파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호러 사파리’는 사자, 호랑이, 곰, 하이에나 등 맹수들이 사는 사파리

월드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사파리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좀비들을 피해 곳곳을 누비는 공포체험이다. 올해는 영상을 활용한 특수효과와 호러 소품을 도입해 관람객이 느끼는 공포의 강도를 높였다. 축제 기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공포체험 시설 ‘호러메이즈’는 7월 여름철 납량특집으로 먼저 오픈했던 호러메이즈1에 이어 호러메이즈2가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아밖에 호러 빌리지 광장 ‘블러드 스퀘어’에서는 오후 6시면 천여구신, 저승사자, 구미호, 무당, 마녀, 미이라, 사신들이 등장해 플래시몹을 펼치고 손님들과 포토타임을 갖는다. ‘마담좀비 분장살롱&의상실’에서는 분장 전문가로부터 좀비 메이크업을 받고 드라큘라, 마녀, 호박유령 등 200여 벌의 귀신 의상도 빌릴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요트 타고 보름달 소원빌까, 팝페라 들으며 힐링할까

■ 전국 리조트 추석맞이 이벤트

주말을 포함해 5일. 모처럼 넉넉한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리조트들이 가족 방문객을 겨냥한 스페셜 이벤트를 내놓았다. 평범한 가격할인보다는 지리적 특성과 추석 분위기를 살린 특색 있는 행사들이 눈길을 끈다.

●대명 리조트, 거제 앞바다 요트 위에서 ‘보름달 소원빌기’



대명 거제마리나리조트는 저녁에 요트를 타고 거제 앞바다를 60분 동안 항해하는 ‘보름달 소원빌기 요트투어’(사진)를 14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떡, 커피, 생수 등 다과와 성인은 생맥주, 미성년자는 논알콜(Non-Alcohol) 음료를 무제한 제공한다. 승선을 위해

서는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해야 한다. 마리나베이에서 오후 8시 출항하고 기상악화되면 출항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한화 리조트, 설악산에서 뽀로로와 함께 즐기는 여유

15일 쏼라노 로비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뽀로로와 함께하는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착순으로 100가족에게 촬영한 사진을 출력해 케이스와 함께 제공한다. 워터피아에서는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돌고래 가족 수영대회가 펼쳐진다. 참여한 가족들에게는 다양한 경품도 준다. 설악 씨네라마에서는 15일부터 17일까지 굴렁쇠,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올평 리조트, 팝페라부터 국악까지 연휴 때 음악에 빠져볼까

추석인 15일은 팝페라 가수 한아름과 바리톤 팝페라 가수 박준서의 무대가 마련된다. 16일에는 팝페라 듀오 스

칼라와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은혜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연휴 마지막 날 17일은 국악팀 소리마루가 나선다. 춘향가, 흥보가, 진도아리랑 등을 국악 듀오의 무대로 즐길 수 있다.

●평창 휘닉스파크, 리조트 푸드 트럭서 느끼는 여유



추석 당일 15일 오전 합동차레(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차레상과 전통의복을 차려입은 제주, 진행자가 진행하며 휘닉스파크 방문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차레 후에는 떡메치기 이벤트도 있다. 여름시즌 인기를 모은 푸드 트럭을 추석 연휴에도 운영한다. 리조트 방문객은 야외에서 샌드위치, 분식, 치킨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토니 헤이워드 BAT코리아 신임사장



총괄을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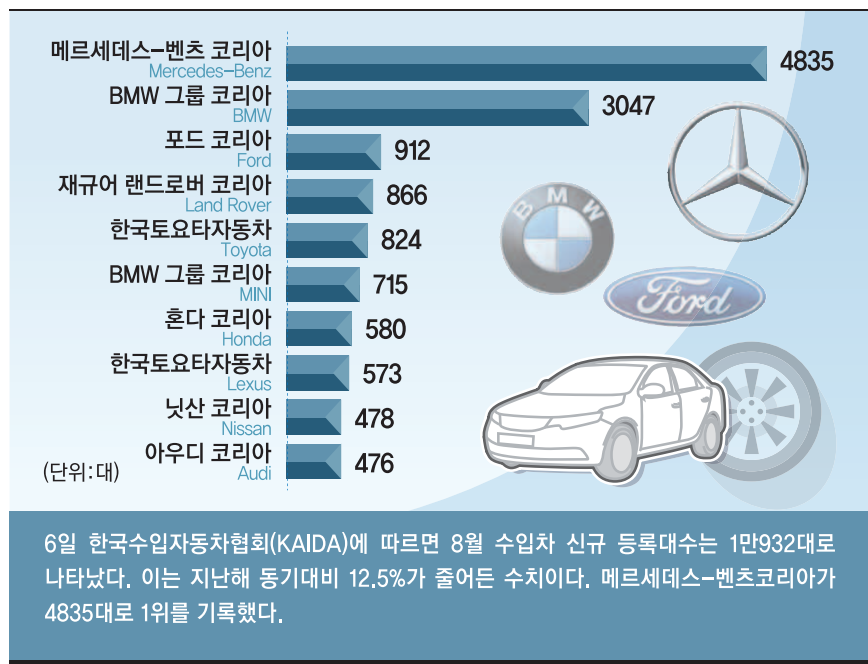
영국 출신인 토니 헤이워드 신임사장은 1999년 BAT 사우스헨튼 공장에서 재무회계 매니저로 임명된 후 17년간 BAT의 핵심적인 재무 전문가로 입지를 굳혀왔다. 2001년부터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지역 재무 매니저 보직을 맡았으며 BAT 루마니아, BAT 폴란드 등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한 BAT 그룹 재무 전략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 이후 영국 본사의 글로벌 HR팀과 BAT 아메리카 지역 매니저 임무를 수행하며 관리자로서의 능력도 배양한 경력이 있다.

신임 토니 헤이워드 사장은 “BAT코리아가 한국시장은 물론 전 세계 담배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형모 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제

8월 수입차 브랜드별 등록대수



카지노 허가...외국기업에 휘둘리면 안돼



취재파일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셀던 애덜슨. 자산 252억 달러(약 27조 8000억원)으로 2016년 포브스지 선정 세계 부호 22위이자 세계 최대 카지노기업 라스베가스샌즈사의 회장이다.

1933년생으로 올해 84세인 이 노회한 사업가의 입김에 요즘 대한민국 지자체가 들쭉이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 추진으로 지역갈등 양상까지 빚는 새만금의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 논란 뒤에는 샌즈사의 애덜슨 회장이 있다. 샌즈사는 새만금의 복합리조트에 5조~10조의 투자를 거론하면서 오픈 카지노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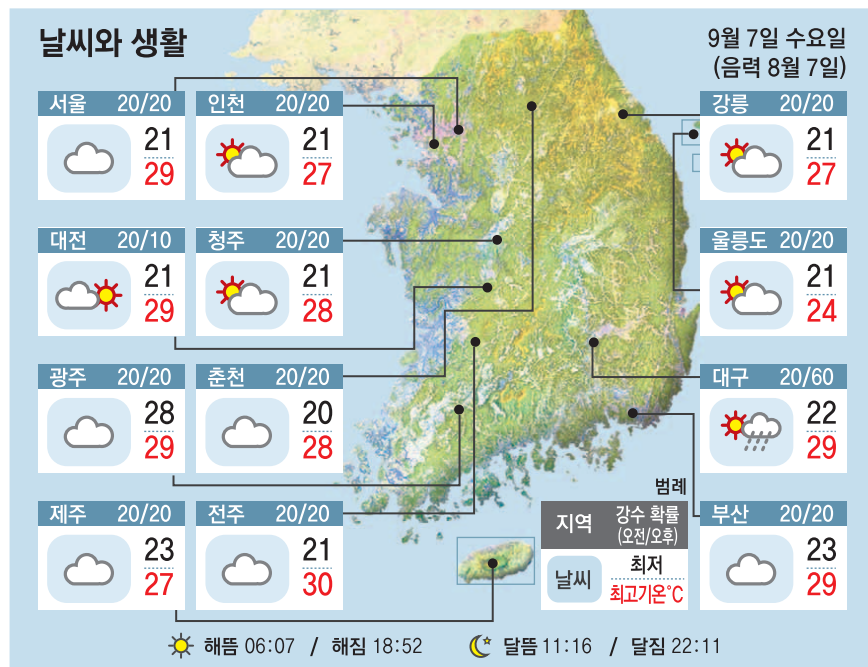
애덜슨은 카지노 복합리조트 단골 성공사례인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리조트를 세운 주인공이다. 마카오에도 베네치안마카오, 코타이센트럴 등의 복합리조트를 잇따라 오픈했고, 9월에는 파리시안 카지노 리조트를 개장한다. 세 리조트의 객실만 무려 1만5000여개. 아시아에서 성공신화를 쌓아온 그는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2년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30억~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고려한다”고 화려한 청사진을 내세

웠다. 이후 행보는 현란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오픈카지노 허가를 계속 타진했다. 2014년 서울 잠실운동장 일대를 복합리조트로 개발하는데 10조원 넘게 투자할 테니 오픈카지노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음해는 북한 지역의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하던 부산에 5조 원대 투자를 내걸며 역시 내국인 카지노를 요구했다. 모두 부정적인 여론과 정부의 불허 방침에 무산됐지만, 2016년 들어서도 샌즈는 집요하게 오픈카지노를 들어대고 있다.

7월 싱가포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샌즈사 임원이 잠실 개발에 내국인 카지노를 다시 제안했고, 6월엔 부산에 5조원의 투자를 들먹이며 오픈 카지노를 또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 진출과는 별도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일본에서 오픈 카지노를 추진하면서 이를 한국에 흘려 조바심과 심적 부담을 주는 심리전도 펼치고 있다.

카지노로 대표되는 게이밍 산업은 엄청난 매출의 화려한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 도박중독과 같은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그늘도 짙다. 돈벌이가 목적인 외국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휘둘릴 사안이 아니다. 애덜슨이 자랑스레 들먹이는 싱가포르가 복합리조트를 검토해 결정하는 데 왜 10년이나 고민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21/28	인천수도 21/27	서울 46 보통
설악산 20/26	제주도 20/29	부산 46 보통
오대산 17/28	경포대 21/27	대구 46 보통
계룡산 20/29	속초 20/26	인천 44 보통
속리산 19/28	대전 21/29	광주 41 보통
소백산 19/28	안면도 꽃지 21/29	대전 48 보통
팔공산 22/29	변산반도 21/29	울산 41 보통
지리산 20/28	거문도 23/28	경기 50 보통
덕유산 20/29	칠보 22/28	강원 41 보통
내장산 21/30	해운대 23/29	충북 47 보통
한라산 13/17	제주도 23/27	경남 48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9/8(목)	서울경기 20/27 영동 20/25 충청 20/28 호남 20/30 영남 22/28 제주 23/28
9/9(금)	서울경기 20/28 영동 19/23 충청 19/28 호남 20/30 영남 21/27 제주 22/28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영연	대표전화	02 2020 0114	한미대행인	02 2020 1065	www.sportsdonga.com
편집인	이성준	편집부	02 2020 1032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편집국장	연제호	스포츠1부	02 2020 1041	산업경제부	02 2020 1060	2008년 3월 3일
광고국장	이승욱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인쇄	동아일보사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

적발금액 전액 포상대상금액 인정

경찰청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보험사기 및 대표포탈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30일부터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와 발맞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도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뛰었다.

●왜 포상금을 올렸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상당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부르는 중대한 사회범죄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은밀성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최근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적발하는데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최근의 보험사기는 쉽게 적발이 어렵다. 전문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일반국민의 감시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지급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내부고발자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높이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한 이유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효율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신고 받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줬다.

●보험사기 신고활성화 방안은 무엇

금융감독원은 급증하는 조직형·공모형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향을 포함해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포상금은 통상 적발금액의 1%다. 적발금액이 많을수록 지급률은 조금씩 낮아진다. 만일 10억원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수령액이 적어도 1000억 원은 넘어야 한다. 고액 포상금 받기가 기대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른 걸림돌도 있었다. 그동안 적발 금액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줬다. 그래서

기대보다 포상금이 작았던 경우도 있다.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금 환수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하기로 바꿨다. 보험사기를 신고해 동일한 금액을 적발한 경우에도 환수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이다.

보험사기 신고절차도 간소화 했다. 인터넷 신고 때 본인인증 방법을 현행 아이폰 이외에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약콜도 도입했다. 전화 신고할 때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김종근 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